

우리나라 천만 영화의 메인타이틀 경향 분석

Analyze the main titles of Korean movies
with 10 million audiences to identify trends

주 저 자 : 이강준 (Lee, Kang Joon) 인덕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vivid70@naver.com

공동저자 : 김영찬 (Kim, Young Chan) (주)머니앤밸류

Abstract

One of the popular culture that leads the Korean wave is representative, so the visual quality and contents must be high, and the typography of the main title, which influences the first impression of the film,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 of the film, Should b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opening titles of 10 million viewers in Korea. Hollywood has been featured in many films since the graphic designer Saul Bass produced the movie posters and title designs for Otto Preminger's movie The Man with Golden Arm in 1955, and the development of metaphorical and implicit video and digital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unique technology and unique technology which was considered as the production of text only. In the typography of 10 million viewers in Korea, the character of the film is unique and differentiated. However, the whole sequence plays the role of prologue rather than a unique and unique sequence, so that the new 10 million viewers One film needs to study the differentiation and professionalism of the design of the main title.

Keyword

movie, moving typography, opening title sequence, typography, credit title, top title

요약

한류를 이끄는 대중문화 중 하나인 영화는 대표성을 띠므로 영상미와 내용의 완성도가 높아야 하고 영화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메인타이틀의 타이포그래피는 영화의 독특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며 차별화된 고유의 특성을 이미지로 표현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천만영화의 오프닝타이틀을 분석하였다. 할리우드는 그래픽 디자이너인 솔 바스가 1955년 오토 프레밍거 감독의 영화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의 영화 포스터와 타이틀 디자인을 제작한 이후 많은 영화에 표현되었고 은유적, 함축적 영상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확산과 더불어 텍스트만의 연출로 여겨졌던 부분을 기술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천만 영화는 타이포그래피에선 영화의 특성을 잘 살려 독특하고 차별화되게 표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시퀀스는 독특하고 독자적인 시퀀스보다는 대부분 프롤로그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후 탄생할 새로운 천만 영화는 한국적 메인타이틀의 디자인적 차별화와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타이포그래피의 정의 및 이해
- 2-2. 영화 오프닝 시퀀스의 개념과 구성
 - 2-2-1. 오프닝 시퀀스의 개념
 - 2-2-2. 오프닝 시퀀스의 구성

3. 천만영화의 오프닝 분석

- 3-1. 영화 <실미도>
- 3-2.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 3-3. 영화 <왕의 남자>

- 3-4. 영화 <괴물>
- 3-5. 영화 <해운대>
- 3-6. 영화 <도둑들>
- 3-7.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 3-8. 영화 <7번방의 선물>
- 3-9. 영화 <변호인>
- 3-10. 영화 <국제시장>
- 3-11. 영화 <명량>
- 3-12. 영화 <암살>
- 3-13. 영화 <베테랑>
- 3-14. 영화 <부산행>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영화는 많은 정보와 생각으로 꾸며진 다양한 이야기로 관객을 울리고 웃기는 대중예술이다. 그러므로 영화에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희로애락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관객이 얼마나 공감하고 감동하여 영화를 관람했느냐에 영화의 흥행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2003년 강우석 감독의 영화 <실미도>를 시작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스크린을 통해 상영된 영화가 총 14편이다. 1000만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 1 가량이 관람한 영화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이다.

영화의 제작 단계는 쇼트, 씬, 시퀀스의 순으로 진행되며,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공간, 움직임, 컬러, 리듬 등으로 이뤄진다. 관객에게 영화의 흥미를 유발하고 전체 흐름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시퀀스를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라 부른다. 영화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는 타이틀 시퀀스 중 영화의 시작 부분에 위치한 시퀀스이며 영화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엔딩 크레딧 시퀀스와 타이틀의 배경이 되는 타이틀백 시퀀스 등이 있다.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는 오프닝 시퀀스 또는 오프닝 크레딧 등으로 불리며, 영화사 타이틀 로고, 주연배우, 주요 제작진, 그래픽 요소가 가장 두드러진 메인타이틀과 영상, 그리고 음향으로 이뤄진다. 영화의 제목인 메인타이틀에는 그래픽 요소가 가장 잘 표현돼 있으며, 그 영화의 함축적 의미가 담겨있다. 그래픽 디자이너인 솔바스(Saul Bass)가 1955년 오토 프레밍거(Otto Preminger) 감독의 영화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The Man with Golden Arm, 1955)의 영화 포스터와 타이틀 디자인을 제작한¹⁾ 이후 많은 영화에 응용되었으며, 은유적이고 함축적 영상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확산과 더불어 단순히 텍스트만의 연출로 여겨졌던 부분을 모션그래픽으로 발전을 이룬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를 분석하고 조형적 그래픽 요소가 담겨있는 메인타이틀의 디자인이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시퀀스에 나타난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첫 인상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오프닝 시퀀스의 사례분석은 단어의 뜻과 함께 의미를 전달하는 이미지이며, 이를 분석하여 앞으로 탄생할 새

로운 천만 영화에서 한국적 메인타이틀의 디자인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알아본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영화의 구조와 오프닝 시퀀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중심으로 메인타이틀을 분석한다. 영화의 선정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로 시대상황을 반영하며 그에 따른 참신한 소재와 남녀노소 구분 없이 흥행에 성공하여 대중적인 공감을 형성하였기에 한국영화의 대표성을 띠고 있으므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역대 박스오피스²⁾에 나타난 우리나라 상영 영화 중, 2003년 강우석 감독의 영화 <실미도>에서부터 1000만 이상의 누적관객을 동원한 우리나라의 영화 14편을 선정하였다.

영화의 성격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메인타이틀에는 영화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픽 요소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 한국적 영화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 이 분석은 유의미하다.

시퀀스는 영화의 특성에 따라 톱 타이틀과 메인타이틀, 그리고 크레딧타이틀이 영화의 프롤로그와 함께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와 톱 타이틀, 크레딧타이틀, 영화의 프롤로그가 끝나는 시점에서 메인타이틀이 등장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그래픽 요소와 함께 영화적 의미가 부여된 메인타이틀을 분석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포함하였고 연구 방법은 타이포그래피와 영화 제작에 나타난 오프닝 시퀀스의 의미를 살펴보고, 영상의 이해와 타이포그래피의 의미 및 사공간적 구성과 타입 형태, 그리고 전개 방식으로 살펴본 후 1000만 영화의 메인타이틀에 대한 경향을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타이포그래피의 정의 및 이해

인류가 서로 소통하여 생활을 하면서부터 설형문자인 그림 문자가 나타났고, 문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을 전달하면서 그림의 형태로 표현한 상형문자로 그

1) 박효선, 영상 디자인의 선구자 솔 바스, 디자인하우스, 2000, p.101.

2) 영화진흥위원회, 역대 박스오피스(통합전산망 집계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stat/boxss/findFormerBoxOfficeList.do?loadEnd=0&searchType=search&sMultiMovieYn=&sRepNationCd=&sWideAreaCd=>, 2017.5.30.

의미를 전달하였다. 이후 상업의 발달은 기록에 대한 인류의 욕망으로 좀 더 체계화된 문자의 형태를 만들게 하여 표음문자(phonogram)가 탄생하게 된다. 기록에 대한 욕구는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를 탄생시켜 잘 다듬어지고 체계를 갖춘 문자를 만들게 하였다. 문자는 어느 한 곳에서만 탄생을 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룬 세계 여러 곳에서 각각의 문자 형태를 탄생시켰으며 문자의 정렬 방식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문자를 읽는 독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 방식이며, 초기의 그리스 문자는 우에서 좌로 다시 좌에서 우로 읽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좌에서 우로 읽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³⁾ 이는 자연스럽게 구텐베르크의 독서중력 원칙을 만들게 하였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인쇄미디어의 독서 방향으로 가독성을 위한 시선 이동의 경향이다.

그리스어 'typos'는 볼록판 전성시대의 인쇄술에 전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디자인할 수 있는 모든 활자로 레터링까지 포함하며 현재는 글자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조형적 표현을 말한다. 'Typography'는 'Typo+Graphia'라는 그리스어의 합성어로 그림을 그리는 의미까지 더해진 개념이다. 19세기 후반 급진적 기술의 발전은 미래파의 시작을 알리고 '자유로운 시각 언어'로 불리며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새로운 회화적 타이포그래피를 탄생시켰고, 지면을 통해 생명력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하였으며, 1917년 전개된 새로운 조형 예술 운동인 데 스틸(De Stijl)을 통해 공간, 색, 선 등이 한층 정교해 지고 실용화 되었으나, 얀 치홀트(Jan Tschichold) 등은 타이포그래피의 본질인 시각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기능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후 1950년대는 국제적 타이포그래피인 스위스식 디자인이 나타나 시각적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리드에 비대칭으로 구성하였고 형태와 성질을 갖춘 사진과 문서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언어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유니버스(Universe)체와 헬베티카(Helvetica)체가 만들어져 50년대와 60년대의 미국과 영국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 표현주의 타이포그래피로 대변되는 미국의 디자인은 이미지와 글이 상호 소통하며 의존적인 관계로 표현되었고 이미지와 사진을 이용한 몽타주 기법이 이미지로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지면을 통해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는 강력한 메시지의 도구가 되었으며 허브 루발린(Herb Lubalin)

에 의해 만들어진 관례와 규칙은 시각적 의사전달 도구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⁴⁾ 급속한 상업의 발달은 시간의 경쟁 시대가 되었으며 점점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유통을 요하게 되었다. 전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타입의 타이포그래피는 가독성, 단순성, 편리성, 비대칭성 등의 성격과 점, 선, 면 등의 활용, 수평, 수직, 사선 등의 다양한 구성과 산세리프의 활용 등이 나타났다. 모던 타이포그래피로 불리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드구조를 탈피하고 타이포그래피에 사진을 이용하여 레이어로 처리하고 자간과 행간을 이용하고 반전 시키며 글자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등 전통적 방법의 해체를 시도하는 타이포그래피인 포스트모던 타이포그래피는 전통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식을 표현하고 있다.

2-2. 영화 오프닝 시퀀스의 개념과 구성

기술의 발달은 한 장의 사진이었던 이미지를 연속으로 촬영하여 움직임을 부여하였고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는 영상의 시대를 열었다. 영상과 같은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은 인류의 욕망은 알타미라의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 다리를 여덟 개로 표현한 황소의 이미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동물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표현하고 싶은 욕망에 대한 기원전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화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하였으며 현재 영화의 상영은 스크린을 통해 관람을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인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시청이 가능한 대중매체가 되었다.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은 영사기와 축음기의 발명에서부터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까지 발명하여 영상이미지의 출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키네토스코프는 혼자 볼 수 있는 장치로 대중영화를 위한 장치로 보기는 힘들며 특정한 장소에서 스크린을 통해 대중에게 영화를 선보인 것은 프랑스 루미에르(Louis Lumière)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Cinematographe)가 현재처럼 영화 상영을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으며, 이후 대중(mass)은 영화를 통해 많은 희로애락을 느끼며 감동을 받게 되었다. 영화의 발전 단계를 보면 무성에서 유성으로, 흑백에서 컬러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어지고 근래에는 2D에서 3D 입체영화로 발전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영화의 표현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발전한 영화에는 우리가 말하는 탄탄한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예술적 완성도가

3) 원유홍, 서승연, 송명민,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안그래픽스, 2012, pp.26-27.

4) 박선의, 최호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진사, 1999, p.94-97.

높아야하며 산업적 발전과 대중에게 주는 감동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 한 편의 영화에는 다양한 의미의 요소들이 표현되고 있다.

2-2-1. 오프닝 시퀀스의 개념

영화는 여러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효과적인 음향 등을 통해 장면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를 관객들이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화를 편집함에 있어 가장 기본 단위는 쇼트(shot)로 카메라가 꺼지지 않고 한 번에 촬영된 장면이다. 여러 쇼트가 모여 행위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신(scene)이며 신의 연속성을 연결하여 하나의 독립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시퀀스(sequence)이다. 시퀀스는 시간과 공간이 동일한 장소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 등이 표현된다. 즉 이야기의 가장 작은 단위인 여러 시퀀스가 모여 하나의 완성된 영화가 된다.⁵⁾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정, 전개, 해결의 이야기 3막 구조는 영상으로 이뤄진 미디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법칙으로 영화의 전체에 걸쳐 나타나기도 하고, 각 시퀀스에 나타나 시간과 장소, 행동의 연속성 등을 통해 스토리의 상승과 하강의 흐름을 보여준다.

영화의 맨 처음을 담당하는 오프닝 시퀀스(opening sequence)는 영화의 첫 인상이 되는 것으로 많은 영화에서 다른 영화와 차별화된 그 영화만의 독특한 그래픽 요소가 나타나는 시퀀스이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체(귀, 코, 눈 등의 감각 기관)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뇌로 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눈을 통해 보게 되는 이미지의 인상은 색과 형태 등을 파악하게 되고 그를 통해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주위의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이상 주시하고 있는 사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눈은 응시하고 있는 사물을 중심으로 주변부에 있는 것을 보고는 있지만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흐릿하게 보인다. 관심이 가는 사물과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눈을 실 새 없이 움직이게 된다.⁶⁾ 감각기관을 통해 전달된 주요 정보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눈으로 보게 된 정보를 토대로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첫인상이며, 첫인상으로 받아들이게 된 정보는 강하게 작용하여 바뀌지 않고 남게 되는데 이는 초두효과(primacy effect)의 한 사례이다.⁷⁾ 배우들은 극중의 연기로 인하여 관객들이 받게 된 첫인상에 대한 기억 때문에 영화 밖의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는 이런 인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인상이란 생김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대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느낌일 수도 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는 것은 장기기억(long-term memory)이 관여하게 되는데 장기기억에 남는 표상은 무언가 제시되었을 때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된다. 즉, 목소리, 시각적 인상, 맛, 냄새 등 통해 부호화(encoding)된 것들이다.⁸⁾ 이는 영화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오프닝 시퀀스의 중요성이며, 다른 영화와 차별화된 독특함을 나타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프닝 시퀀스는 오프닝 타이틀(opening title), 서브 타이틀(sub title), 엔딩 타이틀(ending title), 타이틀백(title back)으로 나뉜다. 오프닝타이틀은 톱마크(top mark)라고도 불리며 제작사나 배급사의 로고나 아이덴티티가 나타나는 톱 타이틀(top title)과 영화의 제목으로 근래에 들어 개성이 강한 그래픽 요소가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톱 타이틀 이후 바로 진행되는 프리크레딧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감독의 의도나 관객의 흥미 유발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메인 타이틀(main title)과 전체 제작진과 출연배우 등 영화 전반에 걸친 프로필이 나타나는 크레딧 타이틀(credit title)로 구성되어 있다.⁹⁾ 이 중 본 논문은 디자인 요소가 강한 메인타이틀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2-2-2. 오프닝 시퀀스의 구성

20세기 초 만들어진 공상과학 영화의 시초는 조르주 멜리에스(Georges Méliès)가 만든 <달 세계 여행>(Le Voyage dans la lune)으로 극영화의 시작이며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영화 발전에 기여했다. 이 시기는

5) 민경원. 『영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p.53-54.

6) Robert Snowden, Peter Thompson, Tom Troscianko(2012), An introduction to visual perception. 오성주 (역). 『시각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2003. p.18.

7) 나은영. 『행복 소통의 심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2.

8) 이진환 외 6인. 『애크인슨과 힐가드의 심리학』. 박학사. 2011. p.168

9) 윤승원. 영화 Title Sequence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석사논문. 2003. p.9.

무성 영화의 시기로 영화 제목과 주요 스텝만을 알리는 단순한 형태의 타이틀을 제작하여 쇼트로 보여주었으며 앨범을 넘기는 방식이나 커다란 글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영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1920년대 들어 라디오방송의 시작과 1940년대 TV 방송의 시작으로 커다란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영화산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차별화의 계기는 195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포스터와 유인물, 광고, 사운드트랙(sound track), 레터 헤드(letter head)와 타이틀 등 영화와 관련된 필름 그래픽(film graphics)의 형식이 만들어졌다. 그래픽 디자인이었던 솔 바스가 1955년 오토 프레밍거(Otto Preminger) 감독의 영화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의 포스터를 디자인하면서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건 배럴 시퀀스(Gun barrel sequence)로 유명한 <007 시리즈>의 모리스 바인더(Maurice Binder)와 트렌트 레즈너의 그로테스크하고 신경을 자극하는 음악과 독특한 타이포 그래픽으로 유명한 영화 <세븐>(Se7en)의 카일 쿠퍼(Kyle Cooper), 그리고 영화 <Catch me if you can>으로 유명한 올리비에 쿤첼과 플로랑스 데이거스(Kuntzel+Deygas)¹⁰⁾ 등이 솔 바스 이후 오프닝 스퀘스 디자인으로 유명한 작품과 제작자이다.

기본적인 영상 구성 요소는 공간, 선, 모양, 색, 움직임 등을 들 수 있으며, 오프닝 시퀀스의 시각적 구성 요소는 타이포그래피, 컬러, 타이틀백, 레이아웃, 시간 등이다.

타이포그래피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가독성과 주목성이 있어야 하고 영화의 특성이 드러나는 독창성이 나타나야 한다. 타이포그래피의 모양에 따라 크게 산세리프, 세리프, 디스플레이(캘리그래피) 등으로 나눠 분류할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가 나타나는 배경은 주목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인쇄미디어처럼 지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영상기법인 컷(cut), 페이드(fade), 디졸브(dissolve), 아이리스(iris), 와이프(wipe)를 통해 쇼트를 연결하여 영상을 편집하게 된다. 컷은 각각의 쇼트를 그대로 연결하는 것이고, 페이드는 화면을 어둡게 하였다가(fade out) 다시 밝게 하여(fade in)하여 다음 신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방법이며, 디졸브는 현재의 이미지에 다음의 이미지를 페이드 아웃하면서 중첩되게 나타내는 기법이다. 아이리스는 무성영화 시대에 많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화면을 닫았다가 열면서 다음 화면으로 옮겨지는 기법이다. 마지막으로 와이프는 현재 이미지에서 다음의 이미지로 첩판을 지우듯 넘어가는 장면을 말한다. 이는 영상 위에 메인타이틀이 그대로 겹쳐서 나타낼 수도 있고 주목성을 위해 페이드아웃 상태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컬러는 각각의 색이 의미하는 고유의 상징성을 통해 관객들이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다. 붉은 색은 정열·흥분·파·혁명 등을 나타내며, 노랑은 쾌락·희열·건강·태양 등을 나타내고, 녹색은 안정감과 평화와 휴식 등을 나타내며, 파랑은 차갑고 냉철하며 영원·고독·진실 등을 나타낸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극하는 색채는 많은 영화에서 암시와 상징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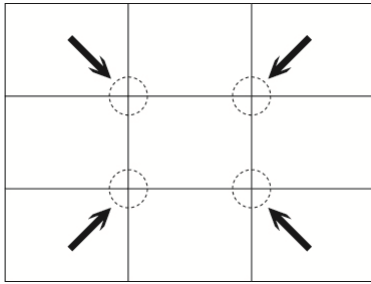
시간은 영화의 한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사이드 필드의 '10분 법칙'에는 첫 10분이 영화를 평가하고 결정짓는 관객들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누구이고, 무슨 이야기이며, 극적 상황 등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¹²⁾ 오프닝에 대해 서스펜스 영화의 거장인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 감독은 "영화가 줄 수 있는 놀람과 재미는 첫 장면에서 거의 결정 된다"고 하였고,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 감독은 "오프닝 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에게 보내는 백지의 초대장"이라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레이아웃은 화면의 구성이다. 스크린의 비례를 통해 결정되는 레이아웃은 1.33:1, 1.66:1, 1.85:1(16:9) 등의 종횡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인간의 시야가 수직보다는 수평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3등분 법칙(rule of thirds)으로 촬영하여 안정적인 영상을 얻는다. [그림 1]은 3등분의 법칙을 1.33:1로 표현한 이미지이다. 또한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스크린에 표현되는 영상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영상은 표현되는 이미지에 따라 관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아이 레벨(eye-level)은 피사체와 같은 높이의 위치에서 촬영한 것을 말하고 하이앵글(high angle)은 피사체 위에서 촬영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독함과 소외됨을 나타내지만 군대의 행군이나 도열 등을 표현할 때는 장엄함 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 로 앵글(low angle)은 피사체보다 낮은 위치에서 촬영되며 대상의

10) 김혜리, 김현정. 타이틀 시퀀스의 세계[1]·[5], <씨네21>, 2003.01.24.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6804

11) 채수량. 영화 오프닝 타이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과 석사논문. 2002. pp.42-48.
12) 김건우. 브랜드 웹툰 1화의 연출적 특징 분석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Vol.1 No.3, p.4.

존경과 위대함을 나타내고 독재자의 경우는 선전용 영상을 표현할 때 활용된다.¹³⁾



[그림 1] 3등분 법칙(rule of thirds)

영상은 이미지의 한 컷 한 컷에 대한 연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구현되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영화적 규칙에 의해 조화를 이룰 때 훌륭한 영상미가 나온다. 영상에서 펼쳐지는 사물의 크기에 따라서 앵글이 변경되고 위치와 비례가 조절되어 사·공간적 움직임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스크린의 비례에 적절한 레이아웃을 유지하고 표현할 때 관객들은 영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소통을 하게 된다.¹⁴⁾

3. 천만영화의 오프닝 분석

2-2-2의 오프닝 시퀀스의 구성에 나타난 시각적 요소를 토대로 한국의 천만영화 메인타이틀을 분석한다. 첫 번째로 타이틀에 쓰인 서체를 산세리프, 세리프, 디스플레이(캘리그래피 포함)로 나눠보고, 두 번째 메인 타이틀이 나타날 때 기법으로 컷, 페이드, 디졸브, 아이리스, 와이프 중 어떤 기법을 통해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세 번째 메인타이틀의 배경이미지인 타이틀백과 컬러를 살펴보고, 시간을 측정하려고 한다.

2017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영화 사이트의 누적관객수를 나타낸 영화진흥위원회 역대 박스오피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우리나라의 천만관객 동원 영화

영화명	감독	주요장르	개봉일	누적관객수
실미도	강우석	전쟁, 액션	2003.12.24.	11,081,000
태극기 휘날리며	김제규	전쟁, 드라마	2004.2.5.	11,746,135

13) 민경원, 『영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p.89-90.

14) 채수량, 영화 오프닝 타이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과 석사논문. 2002, p.48.

왕의남자	이준익	드라마	2005.12.29.	10,513,715
괴물	봉준호	액션, 스릴러, SF판타지	2006.7.27.	10,917,221
해운대	윤제균	모험, 드라마	2009.7.22.	11,324,545
도둑들	최동훈	범죄, 액션	2012.7.25.	12,983,841
광해, 왕이 된 남자	추창민	드라마	2012.9.13.	12,323,583
7번방의 선물	이환경	코미디	2013.1.23.	12,811,435
변호인	양우석	드라마	2013.12.18.	11,374,871
국제시장	윤제균	드라마	2014.12.17.	14,262,198
명량	김한민	액션, 드라마	2014.7.30.	17,615,057
암살	최동훈	액션, 드라마	2015.7.22.	12,706,388
베테랑	류승완	액션, 드라마	2015.8.5.	13,414,200
부산행	연상호	액션, 스릴러	2016.7.20.	11,565,827

3-1. 영화 <실미도>



[그림 2] 영화 <실미도>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실화를 각색한 영화로, 톱 타이틀이 나오고 프로롤로가 시작된다. 1968년 차가운 눈바람을 헤치고 어두운 산 속을 뚫고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공비들과 이를 소탕하려는 군인들의 총격전이 벌어진다.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 사회의 끝으로 몰린 강태강 인천(설경구)과 살아남은 무장공비 김신조의 모습이 교차된다. 김재현 준위(안성기)가 그에게 그 동안의 삶을 얘기하고 사행집행을 명한다. 이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실미도로 강제 차출된 31명의 영화이다. 사형장의 커튼이 닫히며 페이드 아웃되며 망망대해의 바다에 섬으로 향하는 외로운 배와 끝이 날카롭고 섬 같은 하얀색 캘리그래피가 7초간 나타난다.

하얀색은 높은 명도와 낮은 채도로 인해 주목성이 강하며, 무겁고 객관적인 감정을 지닌다. 선이 시작하거나 꺾이는 지점을 굵고 강하게 하고, 선이 끝나는 부분을 작고 날카롭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강하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개성이 강한 31명의 특

수부대원들의 특성과 이야기의 구성을 이끄는 남자들의 강인하고 처절한 감정 선을 잘 살리고 있다. 특히 강하고 날카로운 느낌의 대비는 빠른 속도감을 지니기에, 영화가 지닌 긴박감까지 잘 표현되고 있다. 메인타이틀이 나오기까지 크레딧타이틀은 나오지 않는다.

[표 2] 영화 <실미도>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굵고 강함 날카로움	화면상의 위치	중앙 하단
		지속시간	7"
서체	디스플레이 (캘리그래피)	표현기법	디졸브
		명도	높음
배경	바다(회색 빛 도는 파란색)	채도	낮음
		색상	흰색

3-2.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그림 3]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톱 타이틀이 나오고 바로 7초간 메인타이틀이 나온다. 타이틀백은 15초간 커다란 국기가 검정색 배경으로 바람에 흩날리며 나타나고 장식적인 하얀색의 캘리그래피로 메인타이틀이 나타난다.

포스터에 사용한 캘리그래피는 메인타이틀에 디자인된 글자보다 볼드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며, 메인타이틀과는 조금 다르지만 진태(장동건)가 동생 진석(원빈)에게 주고 싶었던 만년필 글씨처럼 느껴져 형제의 깊은 우애가 표현된 것 같다.

어두운 검정 배경에 하얀색의 글씨는 강한 명도로 주목성이 강하며 흘러 쓴 타이포의 느낌과 슬픈 듯 장엄한 음악이 전쟁 상황의 긴박함 속에 형제만이 알 수 있었던 묘한 슬픔과 우애로 잘 표현되고 있다. 전사자 확인전화가 유해발굴조사단에서 걸려온다. 백발노인이 된 현재의 주인공 진석(장민호)은 손녀와 함께 현장에 가보기 위해 채비를 한다. 서랍 깊숙이 넣어놓은 박스에서 가족구두를 꺼내 올며 먹으며 뭔가를 상상한다. 가족구두에 대한 사연이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첫 시

퀵스가 페이드 아웃된다.

[표 3]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굵고 강함	화면상의 위치	중앙
		지속시간	7"
서체	디스플레이 (캘리그래피)	표현기법	페이드
		명도	높음
배경	검정(흩날리는 국기)	채도	낮음
		색상	흰색

3-3. 영화 <왕의 남자>



[그림 4] 영화 <왕의 남자>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톱 타이틀이 42초가량 나오고 바로 7초간 메인타이틀이 나온다. 조선시대 연산을 올리고 웃긴 남사당패의 광대 이야기이다. 조선시대 가장 천대받던 계층 중 하나인 광대들이 시대를 풍자하고 소리와 춤과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아들을 시기하여 음모를 꾸민다. 메인타이틀의 타이틀백을 형성하고 있는 조선시대 풍속도 사이사이의 여백으로 크레딧타이틀이 풍속화와 어우러져 그림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메인타이틀인 캘리그래피는 힘없는 광대를 나타내 듯 다른 영화에 비해 가늘고 약하다. 그 중 '왕'은 다른 글자에 비해 볼륨이 크고 이를 강조하면서 디자인되어 강한 왕과 주변 인물의 연약함을 상징적이고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배경 이미지로 광대의 놀이 모습이나 그려진 풍속화와 잘 어우러진다. 천만 영화의 사극 3편 중 2편인 <왕의 남자>, <명량> 등이 한국화의 느낌을 살린 그래픽으로 타이틀백을 구성하고 있으며, <광해, 왕이 된 남자>만 영상이미지(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영화 <왕의 남자>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가늘고 약함	화면상의 위치	중앙
		지속시간	7"
서체	디스플레이 (캘리그래피)	표현기법	디졸브
		명도	낮음
배경	갈색(시대적 배경 풍속도)	채도	낮음
		색상	검정

3-4. 영화 <괴물>



[그림 5] 영화 <괴물>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톱 타이틀이 나오고 프롤로그가 나온다.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하라고 지시하는 미군과 난감하지만 외면하고 받아들이는 한국인 직원은 결국 괴물을 만들어낸다. 쫓기듯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한강은 지치고 힘든 도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치고 버거운 삶을 외면하고 자살을 시도하던 사람이 한강 다리아래의 강물에서 커다랗고 시커먼 괴물을 바라보며 보이냐고 묻는 장면은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 사회가 진실을 외면하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외치는 감독의 의도처럼 들린다. 장면이 페이드 아웃되며 10초가량 이어진 메인타이틀이 페이드 인된다. 괴물을 형상화한 메인타이틀은 굵지 않지만 강하고 날카롭게 흘러 쓴 캘리그래피로, 이런 우리 사회가 만든 괴물이 되어버린 조형적 표현이다. 타이틀백은 비오는 한강의 어둠이 검정으로 오버랩되며 강하고 날카롭게 흘러 쓴 흰색 타이포그래피의 주목성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괴물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표 5] 영화 <괴물>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가늘고 약함	화면상의 위치	중앙
		지속시간	10"
서체	디스플레이 (캘리그래피)	표현기법	페이드
		명도	높음
배경	검정	채도	낮음
		색상	흰색

3-5. 영화 <해운대>



[그림 6] 영화 <해운대>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톱 타이틀이 나오고 프롤로그가 시작된다. 자연재해(쓰나미)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자연의 경고이다. 인도 쓰나미(2004)와 일본의 쓰나미(2011)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엄청난 파도 속에 원앙어선은 표류하고 자연의 엄청난 힘과 긴박한 상황에서 삶과 죽음으로 두 남자의 운명이 나뉜다. 구조헬기에 간신히 탄 사람들. 연희 아버지(도용구)는 만식(설경구)에게 딸을 부탁한다. 메인타이틀이 나오는 시점은 상황이 끝나고 아버지의 죽음에 흐느끼는 연희(하지원)와 이를 달래는 억조(송재호)의 슬픔을 뒤로 하고 석양을 배경으로 타이포그래피 '해운대가 11초가량 화면 3등분의 중앙에 나타난다. 석양의 하늘은 붉은 노란색이며, 이 색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이다. 희망과 이상 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거짓과 배신을 표현하는 색이기도 하다. 세리프가 없이 가로, 세로획이 비슷한 굵기의 산세리프체는 굵고 무게감이 느껴지며 단단해 보인다. 배경 색과 어우러진 검정의 산세리프체는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다. 해운대는 우리나라의 여름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제2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장소이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 바다를 구경하고 젊음을 누리는 장소이다. 이곳이 재난의 현장이 되어 송두리째 휩쓸려간다. 메인타이틀은 그 상황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 굵고 단단한 타이포그래피는 영화의 흐름을 암시하듯 무빙타이포로 글자를 해체하여 자연재해에 무너지는 나약한 인간들처럼 단숨에 산산조각 내고 사라진다.

[표 6] 영화 <해운대>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굵고 강함	화면상의 위치	중앙
		지속시간	11"
서체	산세리프	표현기법	디졸브
		명도	낮음
배경	노랑(석양)	채도	낮음
		색상	검정

3-6. 영화 <도둑들>



[그림 7] 영화 <도둑들>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톱 타이틀이 나오고 화려한 크레딧타이틀이 나온다. 케이퍼 무비는 맑은 임무의 전문가적 특성을 보이는 범죄자들이 모여 치밀한 계획과 행동으로 범죄를 성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도둑들>의 인물에 대한 컬러 사용은 다른 13편의 천만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특성에 따라 인물의 개성을 컬러와 면분할로 연출하였고, 확실히 부각시키는 그래픽 효과를 주고 있다. 10분가량의 프롤로그에서 미술관을 터는 뽀빠이(이정재), 씹던 껌(김해숙), 예니콜(전지현), 잠파노(김수현) 등의 화려한 솜씨가 경쾌한 음악과 함께 끝나면 검정 화면을 중심으로 굵고 무게감 있는 고딕서체에 세리프를 살린 노란색 타이포그래피가 스크린 3등분의 중앙에서 영화 초입에 사용된 크레딧타이틀의 표현처럼 이미지가 사라지며 노란색의 생동감을 한층 살린 이탤릭체로 나타난다. 새로움과 흥분, 생동감을 주는 노란색이 검정 배경에서 주목성을 이끈다. 메인타이틀로써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며, 도둑들의 화려한 솜씨처럼 타이포의 조형적 표현과 색상이 잘 표현하고 있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14편의 천만 영화 중 화려한 오프닝이 신을 표현하고 있다.

[표 기 영화 <도둑들>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굵고 강함	화면상의 위치	중앙
		지속시간	4"
서체	디스플레이	표현기법	페이드
		명도	높음
배경	검정	채도	높음
		색상	노랑

3-7.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그림 8]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톱 타이틀이 끝나고 바람소리와 슬픈 현(絃)의 소리가 어지럽고 혼란한 당시의 상황을 눈 덮인 궁의 모습으로 시선을 안내한다. 음은 경쾌하게 바뀌고 음악에 맞춰 광해군을 치장하기 위한 궁녀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곱게 다듬어진 임금의 모

습이지만 역광에 앉은 광해의 모습은 고독하다. 왕이 입고 있는 파란 옷과 벽에 걸린 빨간 의면(衣面)의 보색 대비가 시대적 상황과 왕이 느끼는 화려함과 외로움으로 확연히 대비되는 장면이다. 이 영화는 음악과 시각적 표현이 잘 매치된 느낌이다. 붉은 색과 노란색의 그레데이션이 타이포그래피 안으로 스쳐지나간다. 두 색 모두 강하고 역동적이지만 그 이면에 죽음과 증오, 질투와 비겁함, 그리고 배신이 영화 속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메인타이틀은 3분 정도에 나타나며 오장(五章)의 하나인 용을 형상화 한 것 같은 캘리그래피는 바로 왕이다. 10초가량 빨강과 노란색, 하양의 그레데이션으로 변하며 화면의 중앙에 세로로 쓰여 주목성을 끌고 페이드 된다.

[표 8]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굵고 강함	화면상의 위치	중앙 세로
		지속시간	10"
서체	디스플레이 (캘리그래피)	표현기법	페이드
		명도	높음
배경	검정	채도	높음
		색상	노랑

3-8. 영화 <7번방의 선물>



[그림 9] 영화 <7번방의 선물>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톱 타이틀이 나오고 노란 보자기에 사건 기록 서류가 한 가득이다. 노란 보자기와 노란 풍선의 노랑엔 경고나 거짓말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아닌 희망과 따뜻함, 그리고 행복 등의 긍정적 이미지가 담겨있다. 또한 메인타이틀에 나오는 '7'은 일반적으로 행운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인공의 운명처럼 노란 풍선은 눈 싸인 철조망에 걸려 위태롭고 가냘프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고 있다. 커다란 눈의 예승(박신혜)이 그리워하는 그것일까. 예승의 애절한 눈망울이 머문 그 곳에 노란 풍선과 함께 무빙타이포의 메인타이틀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하얀색으로 위에서 내려온다. 하얀색의 메인타이틀은 가늘고 약해 보인다.

힘없는 평범함 사람이다. 힘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밝은 세상이 희망이고 행복이다. 예승이 보고 있는 하늘의 하얀 눈과 노란 풍선은 행복과 희망이다. 메인타이틀의 글자는 가늘고 약해보이지만 행복과 희망, 그리고 언젠가 한번은 찾아올 행운을 기다리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배경인 밝은 파랑의 하늘에 하얀색의 타이포그래피는 주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입체감을 주어 살리려고 했지만 제목용 형태의 특성을 살리기에는 약함이 있다.

[표 9] 영화 <7번방의 선물>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가늘고 약함	화면상의 위치	오른쪽 상단
		지속시간	8"
서체	디스플레이	표현기법	디졸브
		명도	높음
배경	하늘	채도	낮음
		색상	하양

3-9. 영화 <변호인>



[그림 10] 영화 <변호인>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툼 타이틀이 나오고 경쾌한 음악이 흐른다. 영화 '변호인'은 한 인권 변호사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영화이기도 하다. 메인타이틀로 쓰인 하얀색의 세리프(명조)체는 가늘고 약하다. 돈도, 뺨도, 가방끈도 짧은 판사출신 변호사가 고향으로 내려온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여느 판사들과는 달리 버스를 타고 선배 사무실로 찾아온다. 세리프 서체는 자음과 모음의 끝부분이 붓글씨처럼 돌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왔으며 서적과 인쇄물의 본문서체로 많이 사용되는 서체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익숙하다. 하지만 명조체라고 쓰이는 본문용 서체가 누군가에게 의해 우리에게 역지로 본문 서체로 사용되었던 점은 다른 연구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영화 '변호인'의 사건은 시대적 배경 당시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벌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 역시 보잘것없었던 우리 주변의 흔히

한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고 익숙한 서체이며, 가늘고 약해 보이는 세리프 서체가 이 영화의 메인타이틀로서 톱 타이틀이 나오고 6초간 바로 나타난다. 힘없고 보잘 것 없는 변호사 강우석(송강호)의 부산생활의 시작이 프롤로그로 그려진다. 영화를 관람하는 내내 평범하고 약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스스로 세무 변호사임을 자처했던 주인공이 경의를 알아가고 속물근성을 버리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모습이 메인타이틀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으며 검정 배경에 하얀색 글자가 더욱 뚜렷하고 강하게 느껴진다.

[표 10] 영화 <변호인>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가늘고 약함	화면상의 위치	중앙
		지속시간	6"
서체	세리프	표현기법	페이드
		명도	높음
배경	검정	채도	낮음
		색상	하양

3-10. 영화 <국제시장>



[그림 11] 영화 <국제시장>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툼 타이틀이 나오고 시끌시끌한 시장 소리와 멀리 뽕동 소리가 항구의 풍경을 상상하게 만든다. 노란 나비가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보여준다. 시장은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항상 복잡복잡하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나비가 날아 노부부 앞에 앉는다. 노란색은 희망과 행복, 풍요로움 등을 나타내는 색이다. 영화는 우리들의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였던 세대가 한국전쟁 이후 지금의 풍요로움을 만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던 역사이다. 멀리 부산항의 풍경이 보이고 커다란 배들이 보인다.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나이 들어 노인이 된 덕수(황정민)는 영자(김윤진)에게 자신의 꿈이 선장이었음을 말한다. 그렇게 노인은 지금에서야 부인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한다. 연한 파란 하늘 위로 산세리프의 '국제시장'이 디졸브 된다. 연한 파란색이 배경이기 때문에 굵고 강한 산세리프로 디자

인하였고 하얀색 글자에 그림자처리를 하여 입체감을 보이며 메인타이틀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얀색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겸손을 나타내며, 회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지만 쇠퇴와 후회와 이기심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메인타이틀은 영화의 내용을 반영하듯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 순수했던 젊음이고, 어쩌면 늙어서 하지 못하는 어떤 일에 대한 후회를 잘 표현하고 있다.

[표 11] 영화 <국제시장>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굵고 강함	화면상의 위치	오른쪽 상단
		지속시간	7"
서체	산세리프	표현기법	디졸브
		명도	높음
배경	파랑(하늘)	채도	낮음
		색상	하양

3-11. 영화 <명량>



[그림 12] 영화 <명량>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톱 타이틀이 나오고 정유재란에 대한 타이틀이 스크린의 오른쪽에 나타난다. 타이틀백은 조선시대 지도다. 전쟁의 상황을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영화는 임진왜란으로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삼군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이다. 전쟁의 혼란, 전투의 패배에 전의를 상실한 군사와 330척의 왜군 배를 상대해야하는 수적 열세인 12척의 배, 그리고 전쟁과 죽음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사와 백성. 이 모두를 지켜야하는 장수 이순신에게 인간적 고뇌는 누구보다 깊었을 것이다. 난세엔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의 결정과 의지, 그리고 뛰어난 재략과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용기를 일으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영화 '명량'의 오프닝시퀀스는 물려오는 왜선과 소용돌이치는 명량의 회오리바다가 그의 고뇌와 조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메인타이틀은 영웅이라는 영화의 내용이 의미하는 굵고 강한 붓의 획을 느낄 수 있는 캘리그래피로 우월한 조형성이 검정 바탕에 명도

높은 하얀색 타이포그래피에서 힘이 느껴지며 타이틀로서 판독성이 높다.

[표 12] 영화 <명량>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굵고 강함	화면상의 위치	중앙
		지속시간	9"
서체	디스플레이 (캘리그래피)	표현기법	디졸브
		명도	높음
배경	검정(바다)	채도	낮음
		색상	하양

3-12. 영화 <암살>



[그림 13] 영화 <암살>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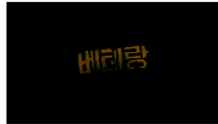
톱 타이틀이 나오고, 영화의 프롤로그는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이 평화로운 숲의 새소리와 오버랩(overlap)되며 일본 군대의 군화 무겁고 강한 발자국 소리를 통해 선명하게 들린다. 데라우치 총독(이영석)을 죽이려 테러를 한 염석진(이정재), 데라우치 총독에게 금광채굴권을 부탁하는 강인국(이정영), 이것이 그들 인연의 시작이다. 총살을 입은 염석진을 치료하고 숨긴 부인이 그를 데리고 만주로 가려한다. 숲길을 따라 숨 가쁘게 쫓는 호랑불, 총성의 불빛이 오간다. 오프닝 시퀀스의 마지막 신은 영화의 주인공인 안옥윤의 어머니(진경)를 아버지 강인국의 명령으로 총살하는 집사(김의성)에 의해 인력거안의 뒤쪽 천으로 검붉은 선명한 피가 퍼지면서 메인타이틀 '암살'이 페이드인 된다.

피는 상징적으로 빨강이며 빨강은 흥분되고 자극적이고 불안과 긴장을 일으킨다. 그것이 검붉은 피라고 상상하게 되면 더욱 그럴 것이다. 총살 현장에서 튼 핏자국이 타이포그래피에 그래픽 처리되며 누군가의 한 맺힌 암살임이 강하게 표현된다. 메인타이틀의 타이포그래피는 검정색 배경에 하얀색 글자이며 산세리프 서체에 돌기를 부드럽게 표현하였고 전체적으로 굵고 무겁게 강하게 디자인 되었으며 타이틀로서 판독성은 높다. 영화 포스터와 메인타이틀의 타이포그래피를 통일성 있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표 13] 영화 <암살>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굵고 강함	화면상의 위치	중앙
		지속시간	4"
서체	디스플레이	표현기법	페이드
		명도	높음
배경	검정	채도	낮음
		색상	허양

3-13. 영화 <베테랑>



[그림 14] 영화 <베테랑>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50초 정도의 톱 타이틀이 나오고 아이리스 기법으로 고딕서체의 '베테랑'이란 노란색 글자가 검정 배경의 중심에 나타난다. 글자의 모서리 부분들이 오래되어 낡은 것같이 표현된 형태로 그래픽 처리되어 있다. 영화 '베테랑'은 서도철(황정민) 형사와 같은 팀 특수 강력사건 담당 광역수사대가 안하무인으로 자란 재벌3세 조태오(유아인)를 악의 축으로 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영화이다.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재벌의 온갖 비리를 통해 분노하고 좌절했을 사람들에게 사회를 비판하고 권선징악을 통해 통쾌함을 간접경험 할 수 있게 한다. 베테랑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오랫동안 종사하여 한 분야에서 기술이 뛰어나고 숙련된 전문가라는 느낌을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느낄 수 있지만 포스터에서 사용한 '베테랑'의 타이포그래피와는 다르게 표현되어 통일성을 없다. 검정색의 배경에 명도와 채도가 높은 노란색의 글씨는 주목성과 판독성이 높고 타이틀로서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 세상 무서울 것 없고 갑질하는 세상 속에서 외롭기만 한 노란색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일까

[표 14] 영화 <베테랑>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굵고 강함	화면상의 위치	중앙
		지속시간	11"
서체	산세리프	표현기법	아이리스
		명도	높음
배경	검정	채도	높음
		색상	노랑

3-14. 영화 <부산행>



[그림 15] 영화 <부산행> 포스터 및 메인타이틀

젓빛 하늘에 톨게이트가 보인다.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이지만 젓빛하늘이 심상치 않다. 문명의 이기인 핸드폰을 잡으려던 순간 뭔가 차에 부딪치고 운전자는 급히 내려 로드킬당한 고라니는 본체만체하고 차만 확인한 뒤, 재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인간의 이기심이다. 이후 간신히 일어난 고라니의 눈은 회색으로 변해있다. 의심스럽다. 오프닝에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영화 '부산행'은 바이러스가 창궐한 대한민국에서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사건의 현장에서 시민들은 생명을 위해 치열하고 처절하게 사투를 벌인다. 사회적 불안 속에 집단과 개인의 갈등이 증폭되고 관료주의와 이기심으로 열차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음을 맞이한다. 오프닝 시퀀스의 운전자 모습과 방역 당국의 무사할 거라는 안일한 대처 장면에서 이미 이기심과 사건 은폐, 그리고 사건의 확대를 예견하고 있다. 장면이 컷되면서 검정색 배경에 포스터에서 본 타이포그래피보다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의 하얀색 메인타이틀이 검정색 배경으로 의미심장한 음향과 함께 5초간 나타났다 사라진다. 굵고 강하며 거친 스크래치로 표현된 산세리프 서체에서 재난 영화의 내용을 알 수 있을 듯 하다.

[표 15] 영화 <부산행> 메인타이틀 분석

서체의 감성	굵고 강함	화면상의 위치	중앙
		지속시간	5"
서체	디스플레이 (산세리프)	표현기법	페이드
		명도	높음
배경	검정	채도	낮음
		색상	허양

4.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천만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의 메인타이틀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면 진행 순서에 따라 톱타이틀→프로로그→메인타이틀의 순으로 진행된 영화는 총 9편

이고, 톱 타이틀→메인타이틀→프롤로그의 순으로 진행된 영화는 총 4편이고, 톱 타이틀→크레딧타이틀→프롤로그→메인타이틀 순으로 진행된 영화가 1편이다. 메인 타이틀의 타이포그래피에 움직임이 가해지거나 변화가 있는 모션 그래픽 기법의 영화는 총 4편이다. 메인 타이틀의 타이포그래피가 디스플레이체로 캘리그래피를 이용한 것은 총 5편이고, 산세리프의 고딕을 이용한 것이 5편, 세리프의 명조를 이용한 것이 2편, 세리프와 산세리프를 혼합으로 사용한 것이 1편, 활자를 이용한 것 같은 것이 1편이다. 예부터 우리는 필적이라 하여 모양과 솜씨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의견을 나누고 판단하기도 하고 독특한 개성이 넘쳐난다. 앞의 분석을 통해 영화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메인타이틀의 타이포그래피 역시 영화의 독특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차별화된 고유의 특성을 이미지화 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포그래피가 표현되는 배경색은 이미지와 검정으로 나뉘지는 데 검정의 경우 이미지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도 있으나 검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검정은 8편, 이미지는 6편이다. 타이포그래피 색상은 하양 9편, 노랑 3편, 검정 2편이다. 배경으로 많이 사용된 검정은 엄숙, 권위, 약, 공포 등의 의미도 쓰이는 색상이다. 8편의 영화는 사회 현상이나 비판, 부정적 힘의 균형 등을 표현한 영화다. 타이포그래피의 색상과 대비되고 명도와 주목성 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격과 힘의 대비, 선악의 대비 등 우리의 정서적 선호도까지 함축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영상기법은 페이드 7편, 디졸브 6편, 아이리스 1편으로 이뤄졌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6] 천만 영화 메인타이틀 분석

진행 순서	톱타이틀→프롤로그→ 메인타이틀		톱타이틀→메인타이틀 →프롤로그		톱타이틀→크레딧타이틀 →프롤로그→메인타이틀	
모션 그래피	9편		4편		1편	
디스플레이체	활용		비활용			
배경 색	4편		10편			
글자 위치	캘리그래피	산세리프	세리프	혼합	활자	
글자 색	5편	5편	2편	1편	1편	
표현 기법	검정			이미지		
	8편			6편		
표현 기법	중앙			오른쪽 상단		
	10편			2편		
표현 기법	하양		노랑		검정	
	9편		3편		2편	
표현 기법	페이드		디졸브		아이리스	
	7편		6편		1편	

앞의 표에서 보듯 진행순서와 모션 그래픽의 활용, 타이포그래피의 컬러, 배경이미지, 표현기법 등을 살펴

보았다. 타이틀은 타이포그래피로서 가독성과 판독성이 요구된다. 8편의 영화가 검정색 배경에 하얀색이나 노란색의 글자를 사용하고 있어 가독성이나 판독성은 좋은 편이나 두 편의 영화가 밝은 화면에 하얀색 글자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여 판독성이 떨어진다. 영화는 한류를 이끄는 대중문화 중 하나로 대표성을 띠고 있어 영상미와 내용의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 본 연구는 2003년 영화 <실미도>에서부터 천만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 14편에 나타난 오프닝 시퀀스의 경향 중 메인타이틀의 변화를 중심으로 표현방법을 살펴보고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 중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시퀀스와 메인타이틀의 완성도는 영화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분석 결과 할리우드의 영화처럼 차별화되고 ‘영화 속 영화’라고 표현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말처럼 독립적 요소로 만든 작품은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객관적 검증에 대한 미흡한 조사로 향후 연구가 요구되며, 향후 본 연구를 기초로 우리나라 천만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에 대한 차별화되고 다양한 표현 기법이 연출되기를 희망하며, 메인타이틀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한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나 천만 영화의 장르별 표현 기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후속 연구가 뒷받침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Robert Snowden, Peter Thompson, Tom Troscianko(2012), An introduction to visual perception. 오성주 (역). 『시각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2003.
- 나은영. 『행복 소통의 심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민경원. 『영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박선익, 최호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진사. 1999.
- 박호선. 영상 디자인의 선구자 솔 바스. 디자인하우스. 2000.
- 원유홍, 서승연, 송명민.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안그라픽스. 2012.
- 이진환 외 6인. 『애트킨슨과 힐가드의 심리학』. 박학사. 2011.
- 김건우. 브랜드 웹툰 1화의 연출적 특징 분석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Vol.1 No.3.
- 윤승원. 영화 Title Sequence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석사논문. 2003.
- 채수량. 영화 오프닝 타이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과 석사논문. 2002.
- 김혜리, 김현정. 타이틀 시퀀스의 세계[1]·[5], <씨네21>, 2003.01.24. <http://www.cine21.com>
-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bis.or.kr>